

# 2030년까지 48조원 투입...세계 최대 발전단지 야심찬 계획

### '전남형 상생일자리'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내용과 과제

3단계 추진...그린뉴딜 생태계 조성  
 호남권 전체 사용 전력량 생산  
 정부 전폭적 지원 없인 추진 어려워  
 전력 사용처 확보·민자 유치 과제

전남형 상생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되는 8.2GW(원전 8기 규모)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민선 7기 전남도의 최대 역점 사업으로 꼽힌다. 전남의 풍부한 해상풍력 자원과 세계 정상급 조선·중공업·풍력발전 기술을 바탕으로 단일 사업 단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전무후무한 프로젝트다. 오는 2030년까지 48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에 기반을 둔 부품생산업체, 연구개발기관, 발전단지 유지보수 업체 등 450여개의 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그린 뉴딜 산업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조성하는 내용이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전남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남 공약사업으로, 2030년까지 해상풍력 12GW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가 보다 선제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민정 참여 아래 2030년까지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전남형 상생일자리 사업 대상지는 신안군 임자도 30km 해상이다. 해상 풍력발전단지 조성, 풍력발전기 생산·조립 단지 구축, 해상 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 송전선로 구축 등을 사업 내용으로 한다. 사업은 총 3단계로 추진된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1단계 사업 기간 4.1GW 규모의 발전단지 준공이 목표다. 올해 초 전남형일자리 선포식을 거쳐 연내 사업 착공 계획이다. 이기간 21조원을 투입해 직접일자리 2800개를 만들고, 150개 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한다. 2단계 사업은 2027년까지 2.7GW 규모의 발전단지를 조성한다. 12조7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400개, 기업 150개를 창출하거나 육성한다는 목표다. 최종 단계인 3단계는 2030년까지 12조 3000억원을 투입, 2GW 규모 발전단지를 세운다. 직접 일자리 1350개 창출, 150개 기업 육성이 목표다.

사업에는 SK E&S, 두산중공업 등 발전사 및 제조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만 열을 올릴 게 아니라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를 전남에 온전히 조성해 전남의 미래 먹거리로 정착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공동접속설비 구축·'원스톱 인허가 기구 신설' 등 정부지원 절실 = 50조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사업비, 전무후무한 사업규모라는 점에서 정부 지원도 절실하다.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크게 3가지가 지목된다.

송배전 공동접속설비 구축, 목포 신항만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조기 구축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해상풍력개발지원본부 설립 등이다. 송배전 공동접속설비 구축 사업은 해상에서 생산한 전기를 육지로 끌어오는 일종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7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공공인프라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전남도 안팎에서는 국가가 50%를 선투자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다만 정부 측은 이런 건의에 대해 특혜 비판을 우려하며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모델로 여겨지는 덴마크 에스비에르항과 같은 전용 부두와 배후단지를 목포신항만에 건설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양수산부, 산업자원통상부, 대통령직속 일자리 위원회 등 여러 부처 인·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해상풍력 개발지원본부'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도 건의하고 있다. 정부 목표는 물론 세계적인 조류와도 일치하는 이번 사업이 대규모 고용 창출, 지역민과의 이익 공유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인허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정부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남도의 입장이다.

장기적으로는 발전단지에서 생산하게 될 엄청난 규모의 전력 사용처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호남권 전력 사용량 전체를 감당할 정도의 규모라는 점에서 기존 원전·화력발전소의 전력 생산 감소도 전제가 돼야 한다. 신안 해상 풍력 사업이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속도는 물론 사업 추진 여부가 갈릴 수 있다.

48조5000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민간 투자 규모가 46조원에 달하는 점도 부담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정 보상과 이익 공유 방안 제시로 여민 반



포스코에너지가 신안군 자문면 일대에 만든 62.7MW 규모 육상풍력 발전단지.

(광주일보 자료)

발을 최소화하는 섬세한 행정도 시종일관 요구된다.는 지지도 여전히 유효하다.

한편 전남도는 지역 주도의 새로운 맞춤형 일자리 발굴을 위해 '2021년 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 공모에 들어갔다. 이번 공모는 시·군이 민간기관과 협력해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자율적으로 발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남도는 2월말까지 시·군으로부터 제안받은 사업 가운데 지역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일자리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시·군의 수요에 최적화된 교육훈련과 구인·구직 매칭, 취창업 지원, 기업 고용환경 개선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예비창업자와 구직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한 시·군은 2월 15일까지 전남도 일자리정책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사업전략과 기대효과, 예산 적정성, 지역고용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남 핵심사업인 '블루 이코노미' 관련시책과 중장년층을 위한 취업 연계사업, 코로나19에 대응한 일자리사업은 가점이 부여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이재명 지지율 독주에 거세지는 견제심리

### 재난지원금 지원 놓고

### 이낙연·정세균 비판 목소리

### 이지사는 의원들 잇단 접촉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에 선두 독주 체제를 굳힐 조짐을 보이자 견제 심리가 확산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원을 놓고 이 지사가 '전 도민 지급'을 강하게 추진하자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총리가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 단적인 예로 꼽힌다.

한 핵심 당직자는 24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내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가만히 있기는 하지만, 의원 중에는 이 지사의 행보를 두고 속이 부글부글 끓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아전인수식 해석을 했다"라며 "얕고 뻔뻔한 그런 행태가 싫다. 한두 번이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도 최근 이 지사를 겨냥해 "왼쪽 감박이 쳐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23일에는 "기획재정부 공간지기를 구박한다고 무엇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잠재적 대권주자인 정 총리 측 분위기는 더욱 험악하다. 정 총리의 최측근인 이원욱 의원은 지난 22일 이 지사를 '친구'라고 부르면서 "일회용 또는 수회용 수단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이

름 붙이는 것에는 동의가 되지 않는다"며 "포퓰리즘 논쟁은 중지하자"고 포문을 열었다. 이 지사를 두고 사실상 포퓰리스트라고 저격한 것은 여권에서 이원욱 의원이 처음이다.

정 총리 본인도 이 지사의 행보에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면서 "차등 지원이 옳다"는 소신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은 직접 반격에 나섰다. 정 의원은 MBN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감박이' 발언을 놓고 "표현이 조금 어렵다"며 "분명한 근거와 정책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지적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지사는 기본적으로 법률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토론하고 계산된 발언을 하고 준비된 정책을 한다"며 "일반 국민이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하다가 보니 직선적이지 않느냐 오해를 받는데 돌출적이거나 모난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옹호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취약지인 여의도와외의 접촉면도 넓히고 있다. 이 지사는 26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민주당 의원 30명이 공동 주최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한다. 이 지사는 토론회를 마친 뒤 민주당 20-30세대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고, 이튿날에는 경기도 수원의 도지사 공관에서 일부 의원들과 만찬을 함께 할 계획이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늘 하던 행사인데 유독 주목받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높아져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만, 그럴수록 본래 할 일인 도정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문 대통령 조용한 69번째 생일...시진핑 축하 서한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69번째 생일을 맞았다. 또 취임 후 네 번째 맞이하는 생일에 맞춰 해외 정상들의 축하 메시지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의 생일마다 축하 서한을 보내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주에 이미 축하 인사를 담은 메시지를 보내왔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22일 생일 축하 메시지와 함께 꽃바구니를 보내왔다. 문 대통령은 이를 자신의 트위터

에 소개하며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하기도 했다.

취임 후 지난 3년간 생일마다 소소한 이벤트 속에 생일을 보냈던 문 대통령은 올해 조용히 가족들과 생일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이었던 지난해 생일에 SBS 라디오 방송에 출연, 진행자 김창완 씨가 '선물 노래를 띄워드리겠다'고 하자 '최고의 생일 선



한 어린이집에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꽃다발을 선물 받았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물'이라며 김씨의 '너의 의미'를 신청했다. 지난 2019년에는 지역경제현장 방문차 들른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에서 '감박 선물'로 직원들이 만든 생일 케이크를 받았다. 또 2018년에는 민생 현장 탐방을 위해 방문한 한 어린이집에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꽃다발을 선물 받았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